

**국영 KazTransOil, Alibekmola유전의 송유관 건설 추진**

- 국영 석유운송회사인 KazTransOil(KTO)은, 국영석유회사인 Kazakhoil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azakhoil Aktobe와 지난 4월 18일 카자흐스탄 서부 Aktiubinsk Oblast 내 Mugalzhар 지역의 Alibekmola유전 송유관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건설될 송유관은 직경 500mm 크기로 Alibekmola유전을 Kenkiyak~Orsk 송유관과 연결하게 되며,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인 Kenkiyak~Atyrau 송유관과 함께 Alibekmola 및 Kozhasai 유전의 산유량 및 수출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 o 이번 송유관 건설계약자인 Kazakhoil Aktobe는 영국 Nelson Resources Ltd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회사로 Alibekmola 및 Kozhasai 석유 및 가스전(원유 및 천연가스 추정매장량 각각 5억배럴, 6,900억 cubic feet)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KTO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큰 송유관을 건설, 산유량을 보다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영국 Nelson Resources Ltd는 Kazakhoil Aktobe 지분 외에도, 카자흐스탄 남서부 카스피해 연안의 Tenge 석유 및 가스전(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각각 1억배럴, 6,840억 cubic feet) 운영권자인 Tenge Joint Enterprise(TJE)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스피해 북쪽 연안의 남 Zhambai 및 남 Zaburunye의 hydrocarbon 생산·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Zhambai LLP의 지분 25% 보유계약도 최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TJE는 최근 1984년 이래 처음으로 Tenge유전의 새로운 유정 굴착에 들어갔으며, 금년중 추가로 3개의 새로운 유정 굴착을 시행할 계획임. 또한, 2002년중 기존 16개 유정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단행하고 기타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여 금년중 525천배럴 이상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송유관 건설구간중 Alibekmola유전과 Zhanazhol~Kenkiyak 송유관을 연결하는 첫 16Km 건설공사는 금년 3/4분기말까지 완료되어 Alibekmola 및 Kozhasai유전의 원유 운송량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처음 운송량은 연간 6백만톤, 일 12만배럴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산유량 변동에 따라 운송량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 참고로, 카스피해와 인접하고 있는 CIS 4개국의 카스피해지역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과 주요 원유 및 가스 운송망은 아래와 같음

<표 1> 카스피해 인접 CIS 4개국의

카스피해지역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생산·수출량 현황

국가명	원 유				가 스			
	확인매장량 (억배럴)	추정매장량 (억배럴)	생산량 (천배럴)	순수출량 (천배럴)	확인매장량 (조cubic feet)	추정매장량 (조cubic feet)	생산량 (억cubic feet)	수출량 (억cubic feet)
카자흐 스탄	100~176	920	693	457	65~70	88	170	-220
아제르 바이잔	36~125	320	280	155	11	35	212	0
러시아	27	140	11	7	-	-	30	-
투르크 메니스탄	6	800	148	83	101	159	1,660	1,200

주 : 생산량 및 순수출량은 2000년 기준 수치임

자료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02. 2

<표 2> 카자흐스탄의 주요 원유 및 가스 운송망

구분	운송망	route	운송능력
원유	Caspian Pipeline Consortium's(CPC) pipeline	카자흐스탄 서부 Tengiz유전→ 러시아 흑해 Novorossiisk항	· 2001년 3월 운송개시시 0.14백만~0.16백만 bbl/d → 향후 1.34백만bbl/d로 증가, 최대 송유관 전망
	Western Kazakhstan pipeline	Atyrau, Mangistau유전 → 러시아(Uzen-Atyrau-Samara)	· 1,800mile로 카자흐스탄 석유수출의 주된 송유관 역할 · 운송능력은 향후 0.31백만bbl/d 전망
	Kenkyak-Orsk line	카자흐스탄 서부 Aktyubinsk 유전 → 러시아 Orsk	· 운송능력은 0.13백만bbl/d
천연 가스	Karachaganak-Atyrau Gas Pipeline	Karachaganak가스전 → Atyrau CPC pipeline → 러시아 Samara	· 그리스, 이탈리아 컨소시엄인 CCC Saipem 이 condensate 가공공장 및 380mile pipeline 건설 프로젝트 추진중 · 향후 운송능력은 0.24백만bbl/d 전망
	Kashagan Gas Exports		· 2005년 Kashagan 유전의 원유 및 가스생산개시 전망 · Kashagan유전 운영권자인 이탈리아 ENI는 러시아 Gazprom의 운송망을 이용하는 협상을 진행중 → 동 협상 타결시 가스 운송량은 1.8Tcf에 달할 전망
	Natural Gas Transit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기타	· 우즈베크 및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을 경유하여 여타 시장이나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에 공급
	Central Asia-Center Gas Main Pipeline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산 가스를 카자흐스탄을 경유 운송	· 연간 러시아산 3.2Tcf, 우즈베키스탄산 106Bcf, 투르크메니스탄산 1.4Tcf 운송 · 카자흐스탄 국영 가스운송망 관리회사인 KazTransGaz는 3.6억달러를 투입, 동 Pipeline를 보수, 운송능력을 2.47Tcf로 늘릴 계획(2000년 1.2Tcf)
	Bukhara-Ural Gas Pipeline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의 카자흐스탄 경유 러시아에 공급	· 2000년 247Bcf 운송 추정

자료 : Kazakhstan: Oil and Gas Pipelines, Energie Information Administration, April 2001

- 천연가스 운송망은 서부 및 남동부로 나뉘어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 및 러시아로 연결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가스가 인구밀집지역인 남동지역 및 산업지대인 북부지역과 연결되지 못하는 등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
  
- 현재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송망 건설이 검토중에 있음